

'키스 해링' 작품 속엔 광주의 꿈이 담겨 있다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올 겨울 광주는 정말 키스해링으로 따뜻할 것 같다. 2월말까지 겨울 내내 가까이서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타계한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분명 그는 광주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광주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아니 그의 작품들 속에 광주의 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인권, 일상, 예술, 생명, 자선의 다섯가지 키워드가 그것이다.

인권 민주·인권·평화의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키스해링은 도시인권작가다. 예술은 만인을 위한 것이라며, 대중과의 소통을 중시했고, 그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꿈꾸었다. "나는 그리는 능력으로 세상에 이바지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그림 것"이라고 그가 선언한 이유다. 그는 사람을 그렸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

해서일까, 사람 모습도 무성(無性)·양성(兩性)의 단순 디자인이다.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 춤추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 우정과 믿음, 신뢰와 사랑을 표현했다. 1987년작 '무제(Untitled)'와 1990년작 '짝꿍(Best Buddies)'이 대표작이다.

그는 또한 인종차별 반대, 반핵, 동성애자 인권옹호, 에이즈퇴치와 같은 사회문제를 비롯, 탄생과 죽음, 사랑과 성 등 인간의 보편적 주제들을 쉽고 명쾌한 메시지로 표현했다. 키스해링의 사람디자인은 인본디자인 창조도시를 꿈꾸는 광주가 깊이 새겨 놓은 디자인 모티프다.



일상 거리, 공공공간의 재발견을 통한 도시재생 키스해링은 거리예술작가. 지하철 드로잉을 통해 낱새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팝아트의 거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에게 도시의 일상공간은 아이디어와 작업 시도의 실험실이자 대중과 소통하는 중요 통로였다. 도시공간을 캔버스로 사용한 것이다. 해링은 베를린장벽 벽화, 뉴욕 128번가 이스트할렘 마약위험공고 벽화를 비롯, 거리, 지하철역, 클럽, 미술관, 병원에 다양한 벽화를 그린 길 위의 작가다. 도시재생을 꿈꾸는 광주가 거리와 일상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술 비엔날레와 축제를 통해 새로운 여향 도약 키스해링은 경계해체의 예술가다. 자유롭고 리듬감 있는 선과 단순한 형상을 통해 낱새와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렸고, 장르간

경계를 해체시켰으며, 예술을 대중 속으로 끌어들이었다. "예술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 살아나며, 대중과의 접촉이 없이는 예술도 없다"고 주장한 결과다. 비엔날레와 축제를 통해 새로운 여향을 꿈꾸는 광주가 지녀야 할 예술의 사명을 암시해준다.

생명 새로운 문화 인태로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지향 키스해링은 생명작가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아기가 자주 등장한다. 기어가는 모습의 빛나는 아기 형상은 순수함과 젊음, 에너지와 능력, 악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표현하고 있다. 아기와 네 명의 임산부가 흥겹게 춤추는 1983년작 '무제'는 생명의 탄생에 대한 기쁨과 흥겨움, 즐거움, 해방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동물과 자연 등 생명력 있는 대상을 또한 소재가 된다. 대표적으로 '아이콘(Icons)' 시리즈와 '개(Dog)'에서

등장하는 짙은 개 이미지를 들 수 있다. 새로운 문화도시를 일대시키고자 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지녀야 할 생명력을 느끼게 해준다.

자선 인권과 산업결함으로 창조적인 문화경제 창출

키스해링은 자선예술가다. 그는 상업과 예술을 결합시켰다. 팝샵(pop shop)을 열어 판매용 작품('팝샵 4부작')을 특별제작하고, 티셔츠와 뺨지 등 문화상품을 판매하였다. 자신의 예술을 대중들이 쉽게 접하도록 상품에 이미지를 입힌 것이다. 나아가 키스해링재단을 만들어 어린이 자선, 에이즈 퇴치 등 자선활동을 통해 수익의 금을 사회에 환원하였다. 어렵고 목지한 사회적 이슈도 재미있고 감성적인 이미지상품으로 변모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키스해링의 자선철학이다. 창조적 문화경제 창출을 꿈꾸는 광주가 배워야 할 지혜다.



도-농간·소득간 문화예술 격차 감소

2008년 대비 관람률 군지역·저소득층 꾸준히 증가
광주 평균수준·전남 최하위... 영화·연극·미술 順

도시와 농어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문화·예술 격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5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세 이상 국민 5000명을 면접 조사해 16일 발표한 '2010 문화향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지난 조사와 비슷한 수준(67.2%)인 점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 중심의 군 지역 관람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지역 거주자의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6.8%로 2008년의 48.9%보다 8% 포인트 가량 높아졌고, 지역문화시설 이용률(58.5%)과 문화행사 참여율(32.6%)도 도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의 예술관람률도 높아졌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관람률은 24.6%로, 2008년 19.3%에 비해 5%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조사대상 기간인 200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전체 조사대상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2008년의 67.3%와 거의 같았고,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60.3%), 연극(11.2%),

미술(9.5%), 대중가요 콘서트(7.6%), 전통 예술 공연(5.7%), 클래식 음악회 및 오페라(4.8%), 문학행사(3.8%), 무용(1.4%) 순이었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는 평균과 비슷한 64.5%를 기록했고 전남의 경우 최하위 수준인 53.9%에 머물렀다. 분야별 관람률은 광주·전남 모두 영화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광주의 경우 미술 관람이 12.3%(전국 평균 9.5%), 전남의 경우 전통예술 관람이 8.1%(전국 평균 5.7%)로 두각을 나타냈다. 저소득층의 관람률은 24.6%로 2008년의 19.3%보다 상당 폭 상승하고 평균 관람 횟수도 0.55회에서 0.89회로 많아진 했지만 전체 평균인 4.88회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조사대상의 문화시설 이용률은 52.2%로, 주로 도서관(20.5%)과 박물관(14.8%)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일 '김원중의 달거리' 을 마지막 무대

안도현 시인 초대... '한 걸음만 더' 주제로 공연

매일 한차례씩 열리는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 을 마지막 무대가 마련됐다. 20일 오후7시30분 광주군 텐츠산업지원센터 공연장(옛 KBS 광주 방송총국). 달거리 공연은 북한 빵공장을 돕기 위해 가수 김원중씨가 매일 셋째주 열고 있는 콘서트다. 가수 안치환, 소리꾼 김응우,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매회 다양한 분야의 손님을 초청했던 김씨는 '한 걸음만 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시인 안도현(사진)을 초대했다. 공연 주제 '한 걸음만 더'는 최근 발생한 연평도 사태로 인해 행여 평화로 가는

발걸음이 멈춰버릴까 하 는 우려를 담고 있다. 힘들더라도 한 걸음만 '더' 가자고, 그 한걸음을 후에 평화로 가는 마음을 전하는 의미다. '너에게 묻는다', '연어'로 유명한 시인 안도현 시인은 이날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 자신의 문학세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니스트 최현호 금호주니어 콘서트

20일 유·스퀘어 문화관

피아니스트 최현호(서울대 기악과 3년)씨가 제1회 금호주니어 콘서트 시리즈 무대에 선다. 2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인 최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하이든의 '소나타 C단조', 드뷔시의 '전주곡 2번' 가운데 '물의 요정'과 '꽃밭놀이', 스트라빈의 '소나타 판타지 2번' 등을 들려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에 그를 수석으로 졸업한 최씨는 금호영아티스트 콘서트 오디션에 합격, 올해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한국리서치 쿠퍼스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또 KBS 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가진바 있다. 문의 062-360-84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0 광주비엔날레 아트포럼誌 '베스트' 선정

2010광주비엔날레(만인보-10000 Lives)가 예술잡지 아트포럼이 매년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선정, 발표하고 있는 '2010년 베스트'중 예술 분야 베스트에 선정됐다. 아트포럼이 2010년의 베스트 추천을 의뢰한 각 국의 전문가들은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 다니엘 번바움, 파리 종피두엔터 수석 큐레이터 크리스틴 마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큐레이터 산디니 페다르 등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17명이다. 이들 중 다니엘 번바움은 2010광주비엔날

레 출판작인 독일 작가 히토 슈테예들의 영상 작품 '11월'을 올해의 베스트 톱 10 작품 중 하나로 추천했다. 또 산디니 페다르는 2010 제8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자체를 2010년의 베스트 톱 10중 하나로 추천하였다. 페다르는 "8회 광주비엔날레가 다양한 얼굴을 지닌 이미지의 삶을 주제로 20세기와 21세기의 첫 10년에 걸친 100년이 넘는 작품들을 다양하게 발굴, 소개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영호 박사의 로벤테라피 제품으로 관리하는 전문 관리샵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손영호 의학박사가 개발한 로벤테라피란?
여러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을 가지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탄생한 제3세대 아로마테라피입니다. 기존의 아로마테라피와는 효과와 용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로벤테라피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증상에 오일을 피부에 발라 10여분동안 마사지 하여 통증이나 각종 증상을 없애는 기적의 자연제품으로 현재 전국 많은 병원에서 사용중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속는셈치고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문 환영 전화예약하시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 오일을 피부에 발라 20분 마사지 / 놀랍고 기적적인 효과 / 확산이 안가신분 / 무료상담, 방문환영
처음엔 의심하던 고객님이 1회관리후 통증이 없어지는 탁월한 변화를 체험하신후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오십니다!!

병증 관리	• 퇴행성관절염, 오십견, 어깨근육통,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피부건강 관리	• 아토피, 여드름, 알러지성피부, 기미, 잡티, 주름개선
순환 관리	• 저림증상(팔, 다리) / 치질, 알러지성비염	여성 관리	• 요실금, 생리통, 갱년기전증후군, 유방암수술후 후유증 등

위의 질병들을 가장 빨리 관리함에 있어서 로벤은 이미 세계최고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 신동아 9월호)

닥터손 로벤케어 광주 상무점

- 손영호 박사의 철저한 교육, 관리시스템으로 로벤테라피 전문관리 체인업
- 전문관리사(자격증소지자)가 고객님을 직접관리

전문관리사: 소정의 교육이수 시험합격자에 한해 로벤케어자격증 발급

“로벤케어의 모든 관리는 책임제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개설문의 환영
모집지역 : 광주,전남북지역
소자본투자 / 안정원수익

상담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가능하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062)376-5557
광주시 서구 치평동 리안대주 APT 정문앞 2층 201호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온가족의 이름을 무료로 감정해드립니다.

신생아작명전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름입니다.
타고난 사주(수명)가 하나인 것처럼 자기에게 맞는 이름(운명)도 하나뿐입니다.
예로부터 사주가 좋은 거지는 있어도 이름 좋은 거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기 가능하며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허가] 社團 星谷 傳統文化 硏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 作名·鑑定 專門 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동구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